

# 한국 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탐색\*

## The Searching for the Direction of Korean Family Culture Education Program\*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송인자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책임연구원 김경혜

Sookmyung Women's Univ.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Education Science  
*Chief Researcher* : Song Inja  
Sookmyung Women's Univ. Research Institute of Children  
*Chief Researcher* : Kim Kyung-hye

###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V. 한국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의 활동방법 |
| II. 가족문화와 가족문화교육       | VI. 맺음말               |
| III. 한국가족문화의 특성        | 참고문헌                  |
| IV. 한국 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방향 |                       |

### < Abstract >

As the social change has been occurred by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making valuable family culture has come to be a social task. The development of family culture education program is required to create future - oriented family culture.

This study aims at searching for the direction of family culture education program in Korea development to serve creating desirable family culture.

For this study the concepts of family culture and family culture education were defined and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Korean family culture were discussed. Based on these discussion, the direction of family culture educational program was proposed.

The directions of Korean family culture education program were suggested promotion communitarian consciousness, balancing between traditional and modern value, creating democratization among generations and genders, equiping with constructive communication channel, and encouraging autonomy and creativity. To work out these directions, appropriate and educational model should be mobilized to include whole family.

\* 이 연구는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를 받아 수행한 것으로 "한국 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방안 연구"의 일부를 정리한 것임.

## I. 머리말

가족은 사회의 기초단위이며 사회성원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회제도로 경제적·정서적·문화적 생활단위라 할 수 있다. 가족은 애정과 경제력이 개입되는 곳으로 이를 통해 가족성원을 돌보며 가족성원의 감정적 욕구를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나 국가에 대하여도 가족은 경제체계, 아동양육단위이며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화의 단위로 가족을 통해 사회성원을 충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가족은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가족구성원으로 성립된 사적 차원의 결속체이지만 끊임없는 사회적 영향을 수용하는 개방체제이기도 하며 가족문화는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은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구조, 기능, 이념 등이 변화해 오고 있다. 사회변화와 함께 사람들은 혼돈과 소외를 느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족에 의존하거나 가족내부로 도피하려는 욕구를 갖는다. 최근과 같은 경제상황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사회적 위기와 함께 가족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가족구성원의 보호기능 수행과 관련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는 196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급격하고 복잡한 사회변동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변동은 가족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하게 했으나 전통사회의 가족의 특성이 사회변화에 부합할 만큼 변화하지 못하여 가족문화 지체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급격한 사회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가족의 기능과 문화적 특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지금까지 사적영역에 포함된다고 여겨던 가정, 가족, 가족문화가 사회성을 띤 영역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권리와 행복한 삶의 실현과 보다 바람직한 미래지향적 사회를 위해 가족문화를 바람직한 형태로 형성하기 위한 사회의 적극적 관여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바람직한 미래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가족문화를 유도할 필요가 나타남에 따라 미래지향적 가족문화형성을 위한 교육이 요구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제작이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다.

우리 나라에 사회교육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40년이 넘었고 80년대 중반부터는 다양한 사회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바람직한 가족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가족문화에 대한 이론적, 심층적 연구도 부족한 상태이다. 현재 실시되는 가족관련프로그램은 부부관계나 부모교육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어 가족모두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나 바람직한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가족문화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가족문제가 잠재해 있거나 표출되었다 해도 초기단계인 경우, 가족건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며 가족구성원간의 문제가 심각해지면 이를 치유하려 관심을 기울이지만 문제해결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가족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다. 바람직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된다면 가족문제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인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가족문화에 대한 연구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가족문화교육이라는 용어는 이 연구에서 처음 사용되는 것이다. 가족생활교육이나 가정생활교육<sup>1)</sup> 또는 사회교육 및 평생교육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바람직한 한국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가족집단이 지니는 문화적 특성과 관련하여 가족문화와 가족문화교육의 개념을 정의한다.

둘째, 현재의 가족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

1) 가정생활 또는 가족생활교육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유영주, 오윤자(1991), 지영숙(1997), 한국가족학회(1997), 송정아 외(1998) 등이 있으며 선행 연구물들은 본 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로 이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가족집단이 지니는 문화적 측면이나 미래사회의 지향성을 요인으로 포함하여 선행연구와 구별하려 한다.

직한 가족문화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 가족문화의 특징과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바람직한 가족문화의 모형과 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한국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활동기준과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바람직한 가족 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탐색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용한 연구방법은 전통시대와 현대의 가족 또는 가족생활, 가족문화와 관련된 선행 연구물을 분석하였다.

## II. 가족문화와 가족문화교육

### 1. 가족문화<sup>2)</sup>

한 가족은 가정이라는 일정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게 되며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생활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이해하게 된다. 한 가족이 동계집단으로 함께 오래 살다보면 그 가족만이 지니는 고유한 생활습관, 풍습, 즉 가족만의 문화를 가지게 된다. 또 이러한 가족문화는 사회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가족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며 세대간 학습을 통해 전달되는 특성을 갖는다.

가족문화는 가족구성원의 지속적인 행동양식을 통해 형성되며 오랜 시간동안 가족구성원의 행동양식을 경험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구조적인 관계 속에서 적용시킨다. 따라서 가족모델은 내재화되고 인성의 일부가 된다(Emy, Jeong, 1996, 154). 물론 자신이 경험했던 가족문화가 싫은 것일 때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자녀에게는 반대의 것을 경험하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계성 속의 경험은 기쁨이나 불안 같은 정서성을 동반한 단순체험이므로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한편으로 가족문화는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맥락이나 사회와의 관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동원과 함

인희는(1993) 가족문제를 가족과 사회의 변화속도간의 지체현상에서 파생되는 문제로 사회변화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가족이 경험한다고 하여 가족과 사회문화의 관련성을 설명한다. 그러나 가족이 사회문화의 일방적 영향하에만 있는 것은 아니며 가족문화를 기반으로 한 가족사회화를 통해 충원되는 사회성원은 사회문화의 형성요인이 되므로 가족문화와 사회문화는 상생적 상호작용의 관계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의 가족문화는 가정생활의 영역에서 유형화된 가치 및 규범체계를 포괄하는 일련의 생활양식(ways of life style)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 가족문화는 가족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며 세대간 학습 및 전달이 이루어진다는 가족내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사회변화나 관계 등 가족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영향받으며, 반대로 가족문화의 특성은 사회문화적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 2. 가족문화교육

가족문화교육의 개념은 선행연구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이다. 여기서는 가족문화교육이란 가족이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고 바람직한 미래사회에 걸맞은 건강한 가족을 형성,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가족기능, 가족가치와 규범, 가족소비와 휴식 등의 가족문화와 관련된 영역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 가족문화교육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학교 이외의 비형식적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평생교육의 넓은 영역 중에서 가족문화와 관련된 영역의 교육을 사회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2) 가족문화라는 개념을 처음 학문적으로 분석한 김혜영은(1996) 가족생활에 관한 구조적 이해를 얻고자 가족문화를 가족이데올로기(가족중심적 가치와 규범), 가족교섭문화(가족성원간의 관계적 경험), 가족소비문화(가족생활을 위한 소비, 여가와 관련된 생활경험)의 세가지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

### III. 한국가족문화의 특성

#### 1.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적 특성

한국 전통사회의 가족제도는 확대가족의 형태를 띠며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제를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전통사회 가족의 부부관계는 남편이 가족내의 대부분의 권리를 장악하고 있는 반면 부인은 집의 계승에 필요한 자녀, 특히 아들의 출산과 그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효규범을 대개로 상하관계로 설정된다. 부모는 가계를 계승할 수 있는 아들의 탄생을 기대하는 한편, 자녀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 다른 기대를 가지며 다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 자녀는 가부장인 아버지에게서 도덕적 윤리적 지침을 내면화할 기준과 사회경제적 안정을 얻으며 어머니에게서 정서적 만족을 얻는다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의 가족구조가<sup>3)</sup>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크게 변화하게 된다. 가족규모의 축소 및 가족세대의 단순화, 친족관계의 약화 현상 등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등장하였다. 1966년 평균가구원 수 5.5명에서 1990년 3.8명으로 축소되었고(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a, 59), 1세대 가족은 1966년 55%, 1995년 12.66%로 2.5배 증가하였고 2세대 가족은 65.58%에서 63.28%로, 3세대 가족은 23.31%에서 9.77%로 감소하였다(한남제, 1999, 44). 가족형태는 다양화하여 1990년에(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6a, 294-297) 조사된 연구에 의하면 전체가구 중 노인가구 3.7%, 편부모가족 7.8%<sup>4)</sup>, 독신가구가족 9% 등으로 그 비율이 증가하고 주말부부라는 새로운 생활풍속도 하나의 가족형태로 자리하고 있다. 친족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나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나 8촌으로 축소되고 친족관계가 약화되는 동시에 부계중심의 친족관계에서 양계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가족관계도 변화하여 전통사회의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수직적인 가족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 가족문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의 교육수준 향상과 자아실현의 확대, 취업여성의 증대 등은 부부관계를 수평적으로 이끄

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취업한 기혼여성의 가족 내에서 성역할 분담은 불가피하지만 가사노동은 거의 주부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취업주부의 이중노동은 '남편'에 의해 덜어지기도는 '식구이외의 사람', '자녀들'에 의해서 일부 분담되고 있다. 230대 남편의 경우 함께 설거지(3.1%), 음식만들기(3.9%), 청소(13%) 등으로 가사노동분담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1990년의 조사에 따르면 90%의 여성이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남제, 1999, 124 재인용). 이는 역할분담이 평등하게 이루어진다고보다는 사회변화에 따라 남성중심의 체제에서 허용된 한도 내에서의 변화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는 효를 중심으로 상하관계로 설정되어 왔으나 수평적 가족문화로의 변화와 함께 부모-자녀가 대화를 통해 인격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성역할 의식이 변화하여 부모의 성평등적 의식의 수준에 따라 가부장적 가족의 경우는 남녀차별이 드러나지만 최근의 조사자료에서(한남제, 1999, 121 재인용) 아들이 없어도 관계없다고 한 여성이 40.6%로 남아선호사상이 줄어들고 아들과 딸을 차별 없

3) 한국가족문화의 특성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고찰함에 있어 전통시대(조선시대)와 1960년대 이후로 나누었다. 그 이유는 각 시기가 가족의 문화적 특성이 확실히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조선시대는 유교적 가부장제의 사회로, 우리사회에서 전통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념체제인 유교적 특성이 가장 충실히 나타나는 시기이며, 1960년대는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진행된 사회경제적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진 시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기를 구분할 경우 개화기, 일제에 의한 한국강점기, 미군정기 등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시기는 정치적 격변기로 사회사상적 변화는 급속했으나 그것이 가족구조나 기능의 큰 변화까지는 유도되지 않고 있는 시기이다. 따라서 전통적 유교체제의 가족구조를 잘 드러내는 조선시대와 경제적 토대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가족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1960년대 이후를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4) 편부모가족은 1966년 38만 가구에서 1990년 89만 가구로 나타났다(한겨레신문, 1996.5.5). 1994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자료에 의하면, 편부모가족 827가족 중 편부모가족은 186(22.5%)이고, 편모가족은 641(77.5%)가족이었다(공세권, 조애저, 1995).

이 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부(父) 중심적인 질서와 수직적 효(孝)개념을 바탕으로 가족원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도 있어 가부장적인 요소와 평등주의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전통사회의 가족구조가 사회변화에 따라 오늘날의 형태로 변형되었다. 가족문화는 사회변화에 따라 특성이 달라지고 가족문화의 변화에 따라 사회문화의 특성도 달라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 2. 가족기능의 특성

전통사회의 가족은 대대로 이어진 '집(家)'을 유지하기 위하여 혈통자로 하여금 대를 잇도록 하는 종족보존의 기능을 하였다. 또 가족은 공동의 조상에서 나온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여겼으므로 공동조상을 받드는 종교적 기능도 했다. 또 전통사회 가족의 경제활동은 가족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과 연결되므로 가족을 단위로 하는 경제활동을 가족 자체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기능으로서 강조하였다. 가족구성원은 서로의 생존을 위한 생활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전통사회의 경제적 기능 가운데 소비를 중시한다면 사회보장기능과도 관련되게 된다. 즉 가족생존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사회 가족의 경제활동은 가족을 하나의 소비단위로 주목하기 때문이다.

전통사회 가족의 또 다른 기능은 가족의 사회화를 통한 사회통제의 기능이다. 유교사상이 사회질서로 작용하던 전통사회에서는 사회통제를 하는데 있어 덕치(德治)를 매우 강조한다. 덕치, 예치를 위하여 가족은 가장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따라서 사회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이해된다(최흥기, 1991, 216 재인용). 이러한 기능들은 부모-자녀관계를 주축으로 방계 친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것이었다. 또 가족의 기능을 모든 가족구성원이 공동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개인적 생활영역은 좁았으며, 역으로 다수의 가족성원을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전통사회에서 가족윤리가 사회윤리로 이어짐에 따라 매우 중시되던 자녀양육 및 사회화의 기능은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자녀출산의 기능은 여전히 중시되어 최근 조사의(한남제, 1999, 121 재인용) 응답자 가운데 78%만이 자녀출산의 필요성을 부인했다. 또 급격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가족은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핵가족제도하에서 자녀양육법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 가족을 구성하는 자녀세대는 시행착오를 겪을 뿐 아니라 양육방법을 둘러싸고 세대간 갈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회가 다원화·이질화·전문화되면서 자녀에게 무엇을 어떻게 사회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은 세대갈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회변화에 따라 주목되기 시작한 가족의 기능으로 가족의 정서적 유대기능과 여가기능은 점차 중시되고 있다(여성한국사회연구회, 1995a, 67)고 할 수 있다. 전통사회의 수직적 가족관계가 수평적, 민주적 관계로 변화함에 따라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강화와 이를 지지할 가족간의 역할은 더욱 중시되게 되었다. 또 경쟁적 사회풍토 속에서 가족성원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져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만족감을 증진하여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국가의 경제적 위기상황이 가족에게까지 파급되어 가정의 경제력 상실로 인하여 가정불화와 가정폭력, 심지어 이혼에 의해 가정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이는 경제력상실로 인한 경제위기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가 견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가족은 심리적 불안이나 위축, 경제적인 스트레스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져 심각한 적응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어떤 가족은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가족구성원의 생활태도를 재정비하고 가족간의 결속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자녀양육기간의 단축, 노동시간감소와 소득증가로 여유시간이 증가하여 가족을 단위로 하는 놀이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여가는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뿐 만 아니라, 자아(自我)가 확대되고 삶의 의미를 중시하게 된 사회에서는 노동만

큼 중요한 기능으로 부각되고 있다. 가족이 함께 여가를 즐기는 경우는 과거에 비해 증가하기는 했으나 끼리끼리 문화로 인한 가족성원간의 단절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1996년의 조사자료에 의하면(이세용, 1997) 아버지와 중학생 자녀의 문화행사 참가 경험이 없는 경우가 68.2%, 레저경험이 없는 경우가 48.4%, 운동을 함께 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50%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가족의 기능은 사회변화에 따라 달라지고 저변에 흐르는 가족이데올로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가족 이데올로기적 규범의 특성

#### 1) 가족주의<sup>5)</sup>

한국인의 가치관이나 의식구조를 다룰 때 가족주의는 매우 중시되는 한국적 특성이다. 가족주의란 모든 가치가 가족집단의 유지존속과 발전에 집중되는 특성으로 전통사회로부터 유래하는 한국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나타나는 가족주의는 경제적 요인과 사회사상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먼저 경제적 요인을 보면, 전통사회는 집약농업적 생산양식을 취하였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시에 집중적인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하므로 가족구성원 모두의 노동력 동원이 필수적이었다<sup>6)</sup>. 또 전통사회 가족의 경제활동은 생산물의 교환이나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회적 의미를 띤 생산이라기보다 가족구성원의 생존을 위한 소비를 위하여 생산하였다. 이와 같이 전통사회에서 가족이란 모든 인간활동의 기초단위이고 여기서 가족주의라는 특성이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전통사회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도출되는 가족주의가 사회변화와 함께 부정적으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이 가족이기주의로 집합주의와 개인주의가 복합된 과도기적인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가족주의가 자기보호를 위한 가족중심주의로 응결되고 있다. 그 위에 서구적인 개인주의를 가족을 단위로 한 집단적 개인주의로 변형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가족이기주의는 전통적 가족주의와 서구적 개

인주의가 상호작용하여 나타난 한국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가족이기주의는 족벌주의, 파벌주의로 나타난다. 회사나 사회조직이 족벌로 운영되며 가족원이 아니면 유능한 사람이라도 배제되는 것이다. 가족주의적 의식이 자연이나 학연으로 확대되어 친한 동향인을 능력에 관계없이 고용하거나 학교의 선후배, 동창의 인맥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다. 이는 족벌이나 파벌이 가족이기주의를 깨뜨리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공동체사회 형성을 위한 이론적 바탕이 될 수 있는 가족주의에서 좋은 점은 잘 살리고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은 극복해야 할 것이다.

#### 2) 효사상

전통사회의 가족질서는 효사상을 매개로 한 부자의 상하관계가 중시된다. 전통시대 백행(百行)의 근본이 되는 효란 무엇일까? 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최재석, 1982). 효는 부모 생전에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행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생전의 효도는 부모를 섬기는 일, 사친(事親)이라 할 수 있다. 부모께 공손하며 시중들고 부양을 하며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사친을 다하는 것이며 부모의 사후에는 살아있는 부모를 모시듯 정중

5) 여기서는 가족주의란 개인의 주관심사가 가족집단의 유지 및 이익추구를 위해 집중될 때 나타나는 행동양식, 사회적 관계, 가치체계 등을 의미한다. 개인과 가족차원에서는 개인의 이익보다 가족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가족과 사회를 대비시킬 때 가족이익이 사회라는 공적영역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것을 말한다.

6) 고려말기 이후 조선초 농업생산력이 연작법과 개간 등으로 크게 발전하고 농업경영이 가족단위로 자영농화함으로써 국가의 수취단위는 점차 개별 호 단위로 변화하는 것을 사회경제적 기반으로 한다. 그것은 종래의 공동체 단위 속의 농가경영과는 달리 보아야 할 사회단위로 소농경영 가족을 의미한다(신영숙, 1991, 44). 고려 말에 도입된 송나라의 유학적 경향(新儒學)은 지주 소작제하에 소농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세봉건체제의 권농정책의 사상적 바탕이 되었고, 가부장적 세계관, 국가관, 사회, 가족관 등을 형성하게 하였다.

하게 제사를 지내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조상을 섬길 아들을 두어야 한다는 것도 자식된 도리로서 의무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효의 원론적 의미는 '부자자효(父慈子孝)'<sup>7)</sup>라고 하여 부모는 자녀에게 '자'(慈)를, 즉 인자함과 사랑을 베풀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孝), 즉 효도를 다하는 관계와 규범과 덕목으로 되어 있었다. 자녀에 대한 자애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본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강조하지 않아도 대부분 실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효는 자연적인 것인 동시에 사회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교육과 규범에 의하여 강조되어야만 잘 실천될 수 있다고 보아 다양한 방법으로 효사상을 내면화시켜 자발적으로 실천하게 하였다. 자식이 부모에게 혈연적 충성을 다하는 부계가족의 구조적 원리에 숨겨진 효가 조선조 사회에서는 사회적 윤리로 승화하였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이데올로기로서 철학적 의미를 갖게되었다(이광규, 1990). 가족원리로서의 효(孝)가 사회적 이데올로기인 충(忠)으로 발전되게 되고, 이는 사회통합의 중심역할을 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효와 충이 상충될 경우에는 효를 우위에 두었다. 그만큼 효란 전통사회의 지배적인 가족규범이었다. 이러한 '효'는 특히 유교문화 속에서 생활의 윤리이며 기초적인 규범으로, 한국가족문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효에 대한 의식에서 세대간 갈등이 엿보인다. 노부모세대가 자랄 때에는 효가 일방적인 것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에 익숙해 있으나 서구식 교육을 받은 자식세대는 효의 실천에 있어서 부모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효사상이 지닌 상호성을 잘 이해한다면 보다 현대적인 의미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매우 바람직하며 아름다운 우리 고유의 정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가문계승의식과 남아선호사상

전통사회에서 부계의 혈연을 계승하는 것은 자손된 도리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제사를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가문을 계승하는 사람은 순수한 혈통자인 직계 적장자가 최우선이며, 아들만이 가문계승의 주체가 되었다. '집'은 한 단위의 가족구성체를 의미하기보다는 家門의 의미를 띠고 조상으로부터 후손에게로 이어지는 세습적인 의미가 강한 것이었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 당대를 사는 가족집단은 조상의 제사를 잘 모셔야 하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위를 어떻게 존속·발전시켜 자손에게 물려주는가가 중요한 과제였다. 또 이러한 가문을 계승할 주체는 아들이므로 그 집(家)에 시집 온 여성의 임무는 아들을 낳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극단적인 남아선호사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여성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게 된 핵심적 이유이기도 하다. 부계사회에서의 아들은 집의 존속을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부부는 세대계승을 위한 수단이 된다.

가문계승의식에 바탕 한 남아선호사상이 오늘날은 전통사회처럼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오늘날에도 이어져 아들을 낳기 위한 방법들이 여성잡지에 소개되기도 하며 이러한 방법들이 아들을 낳고자 하는 여성들에 의해 시도된다. 또 자녀수가 줄면서 아들을 두고 싶어하는 경향 때문에 성비(sex ratio)가 깨지기도 하고 세 번째 자녀의 경우 아들인 경우가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한다. 또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입양하기를 꺼리거나 입양하더라도 아들은 피하려는 경향은 전통사회의 가문계승의식과 남아선호사상이 변형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7) 부자자효의 윤리적 의미는 첫째, 가정적 공동체로서 혈연의 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감정적인 것으로 애경(愛敬)의 정(情)이 자연히 발로되는 것이다. 부모의 정은 자애(慈愛)의 정, 자식의 정은 경모(敬慕)의 효심(孝心)으로 나타난다. 둘째, 부자자효는 공시공소(共時共所)적 이어야 한다. 時雨(父慈)가 내리는 곳에 새싹(孝心)이 자라며, 새싹의 성장을 위하여는 時雨(父慈)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효(慈孝)해야 부자(父慈)해야 된다는 선후관계는 있을 수 없으며 부자의 혈연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천륜의 굴은 유대인 것이다(정옥분 외, 아동학회지 18-1, p8 재인용)

#### 4) 내외법과 성차별

조선사회는 내외법에 의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엄격히 구분되었으며 여성은 외적영역인 공적세계에서 철저히 배제<sup>8)</sup>되었다. 내외법이란 남녀의 사회적 위치를 내외(內外)로 설정하고 생활영역을 남자는 문 밖, 여자는 문 안으로 한정시킨다. 또 이는 공간적인 의미의 생활영역 뿐 아니라 내외적인 분업, 성격에 있어서의 내외적 기질과 남녀의 행동형태를 규정하는 등 일상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송인자, 1994, 39). 이 시대의 여성들은 내외법에 의해 대외활동이 금지되고 가정생활이 전부였으며 비형식적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 교육내용도 처가(治家)나 육아(育兒)와 관련된 것에 한정되었다.

전통사회 가족에서의 여성은 출생 때부터 남성과 차별대우를 받고 자라면서도 음양설에<sup>9)</sup> 입각한 여성의 특성인 정숙, 얌전, 소극, 수동성 등이 교화를 통해 주입되었다. 성장하여 출가한 후에도 성차별은 이어져 혼인과 함께 출가외인이라 하여 친정식구에서 제외되었고 출가한 가문의 사람으로만 존재하였다. 그러나 혼인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역할을 수행하지만 시가(孀家)에서의 여성생활은 시어머니로부터 주부권을 인계받기 전까지 고되고 힘든 삶이었다.

전통사회에서 아들의 어머니는 있으나 개체적 인격적 존재인 여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은 가장권이 절대시되는 가족제도에 예속되는 한편, 신분질서의 유지존속을 꾀하는 국가 이데올로기에 구속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여성은 남성 위주의 가치체계 속에서 사적, 재생산적 영역에 구속되는 한편 사회구조에서 주변적 위치로 소외된 생활을 했던 것이다.

성불평등의 문제는 긍정적으로 변화해 왔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출생 이후 차별적 사회화를 통한 가정교육에서 여아는 “여자답게”, 남아는 “남자답게” 길러진다. 그러나 전통 시대에 비해 표면적으로는 우리사회의 가족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현저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여성들이 갈망하는 남녀평등을 완전히 이루고

있지는 않다. 가정마다 부부사이의 지위관계는 천차만별이다. 성별간의 관계는 부자관계와 친족관계가 교차되면서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성별관계의 급속한 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남성문화와 여성문화가 재래적 전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평등은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변화로 그치고 큰 줄거리는 남녀유별의 봉건적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도 남편의 직업이 우선하며 아내의 직업활동은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나 주부역할과 취업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에만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이른바 “신전통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더욱 많은 여성이 가사일과 직업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해도 여성에게는 가족역할이 우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가족구성의 초기에는 남녀평등의 생활방식이 지켜지다가도 후기에 오면 핵가족생활에서 확대가족 형태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재래적 방식으로 복귀하는 흐름을 볼 수 있다. 가족문화가 남녀평등을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성평등화의 흐름에 역행하거나 견제하는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5) 끼리끼리 문화와 세대차

전통사회의 가족은 대가족제도하에서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또 그 속에서 젊은이들끼리, 노인들

8) 공적 세계에 입문하는 길인 과거응시 자격은 남성에게만 있었고 여성은 남성의 과거급제를 돕는 내조에 국한되었으며 이로써 대리만족해야 했다.

9) 주역에서의 음양설(陰陽說)에서는 음양이 모두 존재해야만 우주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으로 대입되는 음과 양의 특성은 상호보완적인 순환관계에 있으나 다르게 여겨지고 있다. 음(陰)은 유(柔), 약(弱), 저(低), 암(暗), 수동적, 여성적인 것이고 양(陽)은 강(剛), 강(強), 고(高), 명(明), 능동적, 남성적이다. 이러한 구별되는 특성들이 정치에서의 군신관계, 사회에서의 신분관계, 성에서의 남녀관계 등에서 귀천, 상하관계로 위계화 된다. 유교적 가부장제와 결합되어 남성 중심의 가치가 부여됨에 따라 양이 음보다 존귀하고 공적활동이 비공식적 활동보다 중요하게 되어 남존여비사상으로 나타난다.



끼리 등 각지 다른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되고, 구분된 끼리끼리 속에서 공통된 속성을 중심으로 다시 뭉쳤다. 이러한 경향은 내외법이나 장유유서라는 유교적 규범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었다.

그러나 전통사회 가족의 특성이 사회변화에 따라 가족구조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끼리끼리의 특성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은 같은 세대의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모여 분열되며 이를 보고자라는 자녀들 또한 아이들끼리 모인다.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으로 뭉친 끼리끼리 집단은 그들만의 공통된 속성을 내세우며 그것과 다른 속성을 인정하지 않고 세대간, 남녀간의 갈등을 가져온다.

또 끼리끼리라는 문화적 특성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의사소통이 미흡하고 이에 따라 의사소통을 통한 건설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합의하기를 꺼리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세대간 남녀간의 이해와 수용이 미흡하고 대화도 부족하여 다른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 세대별로 남녀별로 끼리끼리 모이는 특성은 여가생활의 형태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퇴근 후 가족과 함께가 아닌 남성들끼리의 유흥적 퇴폐적인 시간보내기로 나타나기도 한다.

#### IV. 한국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의 방향

한국가족문화 가운데 바람직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존속·유지시켜야 할 특성은 무엇이며, 수정·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한국가족문화의 특성 가운데 가족이기주의, 전통과 현대적 가족가치의 갈등, 세대간 남녀간 갈등, 의사소통 장치의 부재, 개방성 부족 등이 바람직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의 방향에서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 공동체적 의식함양

한국가족문화 특성 가운데 가족이기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기 위한 의식형성을 제안 할 수 있다. 가족이기주의로 인하여 가족과 사회가 단절되고 있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는 가족이기주의를 바탕으로 교육도, 소비도, 환경의 이용도 이루어져 사교육비의 과다한 지출, 나눔과 절약의 미덕이 무시된 무절제한 소비, 나와 내 가족만의 안락을 위한 에너지 소비 및 환경오염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사회의 정서적 유대와 집합주의적 가치관이 서구의 개인주의와 결합되어 나타난 가족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사적체계로서의 가족의 불완전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공동체사회의<sup>10)</sup> 형성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구성원들간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고 응집력을 높여 가족공동체적 의식을 함양해야 하고 이를 지역공동체, 사회공동체로 넓게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공동체적 삶을 통해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가족내 구성원간의 관계가 평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법적 경제적 정서적인 가족의 기본욕구가 해결되는 혈연, 비혈연의 핵가족들과 개인들로서 구성된 확대가족이라(이효재, 1994, 136)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으로 또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적 혹은 결과적 형태로 공동체적 사회의 실현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 2. 전통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의 균형

전통적 가족가치와 현대적, 서구적 가족가치는 갈

10) 공동체는 관계망 속에서 계속되어 있는 한정된 사람들로 형성된다. 그 성원은 일단의 가치관과 신념을 공유한다. 그 관계는 인격적이고 직접적이고 보통 대면적인 것이다. 그 성원들을 결합시키는 것은 자기 이익보다는 우정이나 의무감이다. 성원간의 유대는 몇가지 측면만이 아니라 삶의 전체에 얽혀 있다. 성원들은 소속감, 즉 '우리의식'을 느낀다. 각 성원의 이익과 정체성은 전체 이익과 정체성에 의존하고 또 이를 형성한다. 성원들은 서로 결속력을 표현한다(이지현, 1997, p. 55).

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의 균형점을 찾아 미래사회에 걸맞는 가족가치로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전통사회의 가족에서 보여주는 미덕 가운데 가족주의에서 보여지는 친밀성과 일체성을 잘 살려 현대적인 능률성, 합리성과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또 전통가족의 수직적, 차별적 특성의 영향을 배제하고 수평적, 민주적 특성으로 대체해야 할 것이다. 지배와 복종이라는 위계적 가족문화가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주목되는 자율적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되는 가족문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의 구성원리에 대한 의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가계계승적인 가족의 구성원리가 남녀의 성혼으로 가족이 시작되고 노년이 되어 사망하면 그 가족은 소멸되고 새로운 가족이 다시 남녀의 성혼으로 이루어진다는 한 세대의 집단적 구성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 3. 세대간 남녀간의 민주성 확보

우리 나라는 산업화, 도시화가 짧은 기간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의 노부모세대는 전근대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으나 서구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가 중시하는 가치가 생활을 통해 적용되므로 경험의 격차에서 오는 세대차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長幼有序라는 수직적 가족질서는 가족관계를 가로막는 심리적인 장애물로 작용한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사이에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의식이 접촉을 꺼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전통사회의 남녀간 차별성이 현대에는 절대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남녀평등이 달성된 것은 아니며 '신전통주의'라는 용어에서 보여지듯 남성중심의 사회 속에서 제한적인 변화만을 보이고 있다. 끼리끼리로 인한 분절화현상은 세대차와 성차별로 나타나 남성과 성인세대는 중심적 존재로 여성과 미성숙세대는 주변적, 수동적 존재로 소외되게 된다.

세대간 남녀간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전제는 각각이 차별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이는 미성숙자도 여성도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일치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상승적 효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가족의 세대별 성별 불평등구조의 해소는 전체사회의 사회·문화적 변동이 수반되지 않고는 개별가족에 의해 쉽사리 확립시킬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또한 가족 내적으로 가족구성원간의 평등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가족간의 화합을 해칠 수 있겠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가족문화형성을 위한 과정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건설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의사결정과 역할분담, 소비권, 의사소통과 언어표현에서 가족내의 세대간, 남녀간 상호 존중과 평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4. 건설적 의사소통 장치 마련

한국 가족의 수직적 가족문화와 사회문화는 가족간의 정서적 축대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는 쌍방의 우호적 의사소통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끼리끼리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집단끼리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끼리끼리 문화와 의사소통 부재의 문제는 악순환을 계속한다.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폐쇄적인 태도도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의사소통은 가족간에 연습되지 않고 의사소통을 통한 자신의 표현은 미숙하여 가족간의 친밀성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된다.

의사소통이란<sup>11)</sup> 가족간의 정서적 지지와 민주적

11) 의사소통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며, 자신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지만 부정적인 의사소통은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단절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한국가족학회, 1993, 251-252) 참조. 의사소통의 능력과 태도가 형식적인 절차나 원칙에 의해 연습되고 습득되어지는 것이라기 보다 의사소통관계에 참여하면서 함양되는 것이므로 자발적 참여와 협동의 과정을 더 중시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인간관계에서 각자의 역할과 위치의 다양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

관계의 지표이며 이를 상승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의사소통 기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의식을 갖는 일이 중요하며, 이러한 태도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의사소통을 통해 더욱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양자는 순환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의사소통은 가족집단 또는 두 사람 이상의 가족원간의 언어나 표정 몸짓의 신체동작 등을 매체로 하여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주고받는 상호작용과정(한국가족학회, 1993, 255)이다. 가족의사소통의 내용은 문제해결을 위한 것 일수도 있고 정서적 욕구충족과 관련된 것 등 다양하며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으로<sup>12)</sup> 구분된다. 또 두 사람 이상의 가족원간의 대면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드백이 가능하며 가족관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5. 자율성과 창의성을 조장하는 개방성**

전통적으로 수직적 가족관계가 중심이었던 우리의 가족문화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일방적인 지시가 대부분이었고 그 내용은 일정한 틀에 아랫사람을 구속하려는 것이었다. 여기서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사고가 이루어지기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가족의 개방성 부족은 건설적인 외부의 영향도 차단할 우려가 생겨나며 가족문제의 건설적 해결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

가족구성원간의 벽 없는 이해와 상호작용은 구성원에 대한 수용적 태도로 이어지고 더 발전하여 가족간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상호존중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규범의 설정과 가족간 역할 분담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자율성은 민주사회의 시민적 가치로도 매우 중시되는 것이므로 규범적 사회화의 과제도 해결하는 방법인 것이다.

이와 같은 가족구성원의 자율성 존중은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인간특성인 창의력 함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식정보사회라고 일컬어지는 미래사회는 지적 능력보다는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력이 중시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 사회적

으로 창의성발달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며 개방적 가족문화 속에서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한국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의 활동 기준과 방법**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가족문화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활동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의 활동기준**

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은 가족들의 휴식과 긴장 해소, 지속적인 참여에 부담이 없도록 여가성을 우선적인 특성으로 하며, 새로운 행동규범이나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교육성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위에서 제시한 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의 방향을 실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활동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기준은 훈련을 통해서 획득되는 행위규범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실제의 프로그램을 제작, 실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첫째,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어야 한다. 가족공동체와 지역사회공동체적 의식을 형성하

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정적이고 권위적인 부부관계나 부모-자녀관계 보다는 의사소통을 통한 양자의 성장과 성숙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가족공동체 형성의 단초가 될 것이다.

12) 의사소통의 방법으로는 말, 음성, 글, 그림, 몸짓, 표정, 냄새 등이 있다. 비언어적 형태로는 신체이동, 자세, 몸짓, 표정을 통한 신체동작, 접촉을 통한 촉각적 형태, 내새를 통한 후각적 형태, 간격을 통한 공간적 형태, 인공적 형태 등으로 구분한다. 언어적 형태는 분명하지만 비언어적 형태는 모호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언어적으로는 칭찬의 용어(예를 들면 “너 참 잘하는구나”)가 사용되지만 비웃는 듯한 표정과 공간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려는 태도(몸이 닿으려면 피해가며 시선을 내리고 비웃음)와 함께 언어를 사용한다면 부정적 언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 더 부정적인 의사소통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의사소통의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

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참여하고, 다른 가족이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이 속한 가족문화도 비춰볼 수 있을 것이며 가족구성원이 모두 모일 기회를 마련하여 정서적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세대간 남녀간 끼리끼리 모이는 것보다 가족구성원 모두가 참여한다면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세대간 남녀간 분절화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가족간의 대면기회가 적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가족구성원 모두가 참석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고 의사소통을 위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가족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여러 가족이 모이면 구성원간 연령이 다양할 것이므로 세대간 이질감이 문제될 것이다. 이는 가족주기별 프로그램에서 세부적인 것이 잘 고려되어야 한다. 동일세대끼리 한 집단으로 활동하고 다시 세대간 혼합집단을 구성하는 형태로 집단구성을 바꾸는 것도 세대간 이질감 극복의 한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에 참가한 다른 가족과의 유대도 가질 수 있는 놀이적 요소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핵가족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가족이 소수가족이므로 자녀와 같은 또래의 가족이나 부모또래의 더 큰 자녀가 있는 가족과 접촉할 수 있는 집단 게임을 활용한다면 자녀양육을 위한 정보도 교환하고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는 한편, 소수자녀가족의 단점인 개인적 이기심을 극복하고 공동체적 의식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가족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사회화의 모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발달에 따른 과업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영유아자녀가족은 육아에 대한 체계적 정보를 제공하면서 영유아가 급격히 신체발달을 이루는 시기이므로 영유아의 신체발달을 도울 수 있는 “부모와 함께 체조프로그램”이나 유아의 창의력 함양을 위해 “생활속의 과학놀이 프로그램” 등을 제안할 수 있겠다. 아동기자녀가족은 아동기가 발달특성상 언어능력과 사고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사고력을 함양하는 전통놀이나 전통문화 등을 아동의 수준에 맞는 예

와 어휘로 설명하여 창의적 사고력을 증진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다. 청소년기자녀가족은 부모와 자녀 모두 혼란과 변화를 경험하는 발달단계이므로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정체감 확립과 자아의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모는 자녀를 성인이 되기를 준비하는 인격체로, 자녀는 부모를 부족함이 있지만 완전을 향해 노력하는 인격체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므로 “역할 바꾸기와 토론 프로그램” 등을 통해 상호이해와 의사소통기회를 갖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넷째, 성평등주의에 입각한 행동양식을 습득케 하는 활동이 프로그램에 담겨있어야 할 것이다. 성평등적 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생활이나 자녀에게 필요한 물품, 또는 요리실습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물품제작과정에서는 제작하려는 물품을 선정부터 설계, 준비를 가족간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하게 하여 그에 대한 설명을 다른 가족에게 재미있게 소개하도록 유도하고 물품 제작시에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역할을 하게 해 성평등의식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요리실습프로그램이라면 가사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품제작이나 요리실습은 성평등의식 형성에도 도움이 되지만 그 과정에서 의사소통 훈련, 창의적 사고력 함양, 노동의 가치와 완성의 기쁨 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자녀들에게는 학교교육 보완의 기능을<sup>13)</sup> 하는 활동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예로써 창의력형성에 도움이 되는 과학놀이 프로그램이나 방학을 이용한 박물관교육프로그램, 전통놀이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학교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

13) 여기서 말하는 학교교육의 보완기능이란 학교교육을 통해 성취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능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학교교육에서 충족되지 않는 기능에 대한 보완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의 기능을 이상적인 학교교육이라 할 때 여기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육적 기능을 보완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전인육성을 교육목적으로 하면서도 인지적 측면에만 학교교육이 치중되므로 도덕성, 인격, 감수성, 가치관 확립 등 인성적 측면의 훈련을 보완한다는 의미이다.

게 하는 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이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이다. 한편 현재의 학교교육이 인지적 영역발달에 주가 두어지므로 인성발달에 관련한 많은 비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기자녀 가족에게 역할극이나 가족영화감상프로그램을 통해 “효”에 대한 원론적 의미를 수준에 맞는 예와 어휘로 재미있게 이해시키고, 청소년기자녀가족의 “부모와 함께 하는 자녀의 성년식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성인 됨”의 의미이해와 부모의 인간적 성숙 기회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즐거운 활동이어야 한다. 모든 사회교육프로그램은 참가자의 자발성에 의해 운영되므로 가족구성원이 흥미롭고 유쾌하게 보낼 수 있는 오락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내용이 너무 무거워 접근이 부담스럽거나 심각한 의미만으로 프로그램을 엮는다면 여러 회 이어지는 프로그램에 지속적인 참가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일곱째, 주입적이며 개념적인 것보다는 일상생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실제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이 동기유발이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덟째,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내용과 자원을 활용하는 한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활동, 친환경적인 활동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2. 한국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의 활동 방법

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은 기존의 사회교육 프로그램과는 달리 학습자의 연령과 발달단계가 매우 폭이 넓으므로, 학습방법의 선택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첫째, 실습활동으로 부모, 부부, 아동 및 전문가들의 공동 활동(예: 놀이, 공작, 노래, 체조, 축제, 관람, 소풍 등의 준비와 실행)이 활용될 수 있으며 둘째, 토론법으로 참가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테마 토론과 전문인력과의 상담 및 토론법을 사용할 수 있다. 셋째, 필요한 주제를 강의나 강연을 통해 다수 청중에게 전달하고 넷째, 가족문화교육 주말 프로그램으로 가족오

락, 실습 및 토론법을 활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안 할 수 있는 활동방법으로는 열린 만남으로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만남을 위한 공간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영유아기자녀가족의 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으로 “부모와 함께 하는 체조교실”, 유아기의 자녀가족의 “가족이 함께 하는 과학실험실”, “가족이 함께 하는 요리교실”, 아동기 자녀가족의 “가족전통놀이 프로그램”, “가족과 함께 하는 박물관 프로그램”, 청소년기 자녀가족의 “부모와 함께 하는 성년식”, “가족이 함께 하는 봉사활동프로그램” 등을 제안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방법을 주도해 나갈 프로그램 운영의 주체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고 있어야 하며 거리와 특성상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프로그램의 양적 확산을 위한 권장을 위한 관의 공적 개입이 가능해야 할 것 등의 요소가 만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갖춘 기관으로 대표적인 것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각급 학교들(유아교육기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학교의 유휴 시설(방과후 빈 교실, 지역사회교육 전용교실, 미술실, 가사실습실, 재봉실, 작업실, 음악실, 강당, 운동장 등), 교회, 도서관, 박물관, 휴게실, 구청 또는 동사무소 등의 정부 건물, YMCA 건물, 극장, 산업시설, 공원, 놀이터, 가정집, 복지회관, 유아교육기관 등의 장소를 활용함으로써 공간적 확대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법 그리고 참가대상에 따라 4-8주에 걸쳐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족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체가 참여하는냐에 따라 계절, 요일과 시간을 다르게 배정할 수 있다.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면 청소년 연령층과 아버지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지도자(강사)는 예절 강사, 유아교육 전문가, 레크레이션 지도자, 과학 강사, 박물관 강사(각 분야 별), 교사, NIE 지도자, 생각물 지도자, 방과후 지도자, 사회체육 전문가, 성교육 강사, 청소년 지도자, 사회교육 전문요원 등으로 다양하며, 지역주민의 자원봉사도 의미있을 것이다.

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의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시기의 홍보가 요구되며 참가비는 프로그램의 성격과 형태에 따라 시설사용 요금이나 관리비, 강사료, 재료비 등을 고려하여 저렴하게 책정해야 한다.

## VI. 맺음말

인간에게 가족은 일차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족문화는 자녀의 인격형성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족과 가정은 우연히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간의 상호작용유형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가족문화를 바람직하게 형성하는 일은 가족구성원의 행복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제가 된다고 하겠다. 또한 사회문화는 가족의 생활양식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특히 우리 사회는 사회적 공적 가치체계의 과업도 가족적 사적 가치체계의 영향하에 이루어지는 풍토이므로 바람직한 가족문화의 창출은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람직한 가족문화형성을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교육활동이 필요하며, 이를 구체화 할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가족문화교육은 가족문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가족성원의 행복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현재와 미래의 가족역할상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포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은 미래지향적인 창의력과 함께 인격이 잘 발달된 인간을 키우기 위하여 가족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공동체적 의식의 함양과 전통과 현대적 가치가 균형을 이루고 세대간 남녀간 차별이 없는 민주성과 개방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설적 의사소통장치를 확보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의 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가족에 속한 모든 가족구성원이 참여하고, 위세대가 아래세대에게 문화전달을 해 줄 수 있는 활동으로 전통과 현대적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세대간 남녀간 평등주의 행동양식을 익힐 수 있는 활동, 자녀의 학교교육의 보완적 기능을 하며 일상적 삶에 필요한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살린 활동이 요구된다. 또 더 많은 가족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여가성 및 오락성을 살린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대전제 위에 가족주기별로 중시되는 발달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의 활용방법은 실습, 토론, 강의나 강연 등을 사용하며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한 주체로는 지역사회학교를 들 수 있다. 프로그램의 횟수와 시간은 내용과 대상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하며 진행자는 다양한 사회교육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문화교육의 발전은 사회적 시대적 상황과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능 및 조직구조의 개편 등과 같은 가족문화교육기관의 독자적인 노력과 국가 전체적인 정책과 다른 부수적인 사회교육들이 서로 맞물려 가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전개방식이 강제성을 띠 하향식 행정체제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전제는 변함이 없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 가족문화교육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지 않아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가족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프로그램개발에 착수함에 따른 한계이다. 가족집단은 가족구성원들의 역동적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데 문헌분석으로 가족문화의 특성을 규정하는 것에는 제한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례연구나 참여관찰법 등이 병행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의 일반적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가족주기별로 나타나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 가족주기별의 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은 각 주기별로 독립적,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할 주제이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다루고자 한다. 셋째, 가족문화프로그램이 개발되는 단계에서 꼭 필요한 것이 요구도조사이나 이론적 분석에 치중된 연구의 성격상 시행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후속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넷째, 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 방향과 관련하여 전형적인 가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독신가정, 장애아 가정, 편부모가정, 이혼가정, 환자 가정 등 특수한 문제를 가진 가정에 대하여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또한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 ■ 참고문헌

- 1) 강선미 외. 가족철학. 이대출판부. 1997.
- 2) 공세권, 조애지. 가족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제 16호, 1994, pp.5-21.
- 3) 김규원. 가족개념의 인식과 가치관, 가족학논집 제7집, 1995, pp.213-255.
- 4) 김명희. 현대사회의 부모교육. 학문출판. 1996.
- 5) 김지신.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과 양육행동 및 아동의 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제18권 1호, pp.125-142, 1996.
- 6) 김혜영. 한국가족문화의 계급별특성에 관한 경험적연구, 고대박사학위논문, 1996.
- 7) 송인자. 개화기 여성교육론 연구. 숙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8) 송정아 외. 가족생활교육론, 교문사, 1998.
- 9) 신용하, 장경섭. 21세기 한국의 가족과 공동체문화. 지식산업사, 1996.
- 10) 여성한국사회연구회. 가족과 한국사회. 1995a.
- 11) \_\_\_\_\_,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사회문화연구소, 1995b.
- 12) 유영주 외. 가족발달학. 교문사, 1990.
- 13) 유영주 외. 결혼과 가족. 경희대 출판국, 1995.
- 14) 유영주, 오윤자. 건전가족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집, 1991, pp.45-63.
- 15) 유은희·정현숙.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상담 교육연구소, 1995.
- 16) 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일지사, 1975.
- 17) 이동원, 함인희. 산업화유형에 따른 가족문제의 실태 및 유형에 관한 연구. 이대한국문화연구원 논총. 62-2, 1993, pp.5-26.
- 18) 이연숙. 성인을 위한 가족생활교육론. 학지사, 1997.
- 19) 이세용. 아버지의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31집, 1997, pp.595-623.
- 20) 이지현. 개인, 공동체, 교육Ⅱ-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사회주의. 교육과학사, 1997.
- 21) 장휘숙. 가족심리학. 박영사, 1995.
- 22) 정옥분 외. 전통 '효' 개념에서 본 부모역할 인식과 자녀양육행동, 아동학회지 제18권 1호, 1996, pp.81-107.
- 23) 정재걸. 조선전기 교화연구. 서울대박사학위논문, 1989.
- 24)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88.
- 25) 지영숙. 현대가족생활설계론. 서울:학지사, 1997.
- 26) 최재석. 현대가족연구. 일지사, 1982.
- 27) 최혜경. 공동체주의 철학과 교육적 의사소통론. 숙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28) 최흥기. 유교와 가족, 가족학논집 제3집, 1991, pp.207-227.
- 29) 한국가족학회. 가족생활교육 이론 및 프로그램. 하우, 1998.
- 30) 한국여성개발원. 열린사회와 가족, 한국여성개발원-유네스코위원회. '세계가정의 해' 기념세미나 자료집, 1994.
- 31) 한남제, 현대가족의 이해, 일지사, 1999.
- 32) Adams, B. N.(1986), The family. Rand Ma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33) Erny, P. Jeong, M-R., Etre parents:Parcours pour une education, Lyon, Chronique Sociale, 1996.
- 34) Rice, F. P.(1990), Intimate Relationships, Marriages and Families, Cal: Mayfield Publishing Company.
- 35) Sullivan, K. C.(1989), Woman, power, and gender: A critical analysis of feminist perspectives in anythropology. Ph.D. Michigan State University, In D.A.I. vol, 50,no.7.